

“포교지로서의 정진 계속해 달라”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 적 스님... 32면 증명한 본지에 조언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생활활동의 변화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신행·수행은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이다. 불교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시각, 균형감 있는 기사 등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

본지의 32면 증면(제830호, 2011년 4월 6일자)과 관련해,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이 증면을 계기로 신행·수행을 통한 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본지가 창간된 1994년에는 5~6개에 이르는 불교계 신문이 있었다. 장적 스님은 본지를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창간 정신으로 종단에 대한 대소사보다는 신도들의 마음공부에 관계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불교계 언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매체로 기억했다.

장적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은 여전히 신행과 수행을 통한 생활화·현대화·세

계화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며, 신행과 수행적 측면에서 역할이 상당하다”며 “불교 포교지로서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 신행·수행은 현대인들의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본지에 게재되는 종단 관련 정치 기사에는 균형과 깊이 있는 시각을 주문했다.

장적 스님은 “조계종 주요 종책 및 정치적인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균형감 있는 보도와 깊이 있는 시각의 비판과 견제를 담은 내용이 요구된다”며 “최근 현대불교신문의 보도는 신행과 수행, 포교에 대한 기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적 스님은 “최근 현대불교신문의 종단 관련 기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며 “종단 관련 비판 글이 나가면 그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시각의 글을 게재해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기자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과거에 의지했던 의지처(한마음선원)가 없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기자들이 젊어 종단사안과 관련한 선배들의 조언이 없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사안에 대한 기사의 깊이는 생각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은 단점이지만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증면과 독자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독자확보 비법은 불교언론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담은 포교지임을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연 기자

단독 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님 찬양을?

공공문화강좌서 기독교 무용 파문

공공기관 문화강좌에서 특정종교의 선교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돼 종교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에서 선교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중랑구 등 네 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선교무용을 교육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기독교 문화 선교법으로 찬송가에 맞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프로그램이다.

성북구는 성내 2동 주민센터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매주 금요일 선교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도 구민회관에서 매주 화·금요일 선교무용을 운영 중이다. 동작구와 중랑구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동호회 프로그램으로 편성, 연습 공

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독교 음악이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기관 담당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종교적 색채가 있다면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 장소만 대여하는 경우, 종교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라고 지적했다.

종자원은 또 “각 기관에 정교분리에 대한 질의, 관리감독 책임 공문 발송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세상 말하는 수정주 역할하길

포교원장 혜 총 스님 등 독자 바람

본지는 4월 6일자 제830호 신문부터 28면에서 32면으로 증면 발행을 시작했다. 증면을 통해 바른 시각으로 불교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획기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풍성한 읽을거리와 알찬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제과와나 방배선원 일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통도사 정도 스님의 ‘삼소굴의 향성’, 동화사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최홍순 연구교수의 ‘구술로 쓴 한국불교인물사’ 등을 새롭게 연재하고 있다.

“혼탁한 세상 말하는 수정주같은 신문되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불교계 신문은 물을 말하는 수정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본 것을 수정주에 담아서 독자들을 위한 유익한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 불교계 언론은 1~3종합면을 종단기사 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끄럽고 부정적인 내용은 일간지에 맡기고,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과 스님의 법문과 명사들의 말씀을 신는 신문이 돼야한다. 요즘에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세이다.”

“신행·수행 관련 기사 늘었으면”

-태고종 법현 스님

“솔직히 32면으로 증면했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다.

편소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를 즐겨 읽고 있다.

개인 수행활동이나, 수행 관련 기사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사회 시사 및 유명 인사 덕담도 실었으면”

-김희진(경기도 고양)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전문지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회 시사 및 유명 인사들에 관한 덕담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은 불교적 색채가 굳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번쯤 다루주길 바란다.”

“32면 증면 긍정적이다”

-김옥재(경기도 광명시)

“기자들이 신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32면으로 증면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끔 점술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는 신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산사, 환경 등 연재기사 실었으면”

-김용호(서울 둔촌동)

“신문을 정독하는 타임이 아니어서 그런데 32면으로 늘어난 지 잘 몰랐다. 그래도 대행 스님의 법문만은 꼭 챙겨 보고 있다. 예전에 산사 환경에 대한 연재 기사를 재밌게 읽었다. 산사·환경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국군체육부대 부지서 금동불상 7점 출토

영남문화재연구원, 통일신라시대 조성 추정



연구원은 “적심건물지 1~4호부에서 ‘광림사부(廣林寺付)’라 적힌 기와가 다수 확인되고, 건물지의 층위양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등이 출토됐다”며 “추정 ‘광림사’는 조선시대 조성된 ‘전오정사지’ 이전에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고려시대 중(후)기까지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원장 이희준)은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을 조사한 결과, ‘전 오정사지(傳 鳥井寺址)’ 및 ‘광림사(廣林寺)’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 9동, 축대시설 6기, 부속시설 8기 등이 확인되었고, 금동불상 7점(사신), 명문기와 등이 출토됐다”고 4월 21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독자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본지는 창간 이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이는 편집국 구성원 각자가 불자로서의 바른 눈,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지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비롯해 ‘선지식을 찾아서’ ‘법향을 찾아서’ ‘합계가요 강의실’ 등 코너를 통해 여러 선지식·전문가의 법문과 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불교문화 부문을 강화해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윤상민의 서화산책’ ‘한국의 선시감상’ 등을 연재 중입니다.

또, 현각 스님의 ‘선심으로 만나는 세상’,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정도 스님의 ‘삼소굴의 향성’, 일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변태주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윤창화의 ‘선원 총림을 가

다’,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임연태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발 기행’, 최홍순 교수의 ‘한국구술인물사’, 고지연의 ‘수리아의 검’ 등이 본지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본지의 연재물과 기사들은 모두 사시 구현의 방편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제위께는 올바른 수행생활을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

독자제위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혜총·장적 스님의 말씀을 수용해 100자 뉴스 등을 강화해 불교계의 작은 소식도 공정하고 소중히 다루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법현 스님과 김희진·김옥자·김용호 독자 외 의견 주신 많은 분들의 바람

이 외고와 기사에 녹아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지는 언론 본연의 비판과 견제, 감시의 기능과 불교 전문지로서의 신행·수행 기사의 균형 있는 게재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제위께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눈, 수행생활을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불교계의 소외되고 부족한 곳과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갖는 보살의 역할, 권력 등이 넘치는 곳과 사람에게의 차가운 이성으로 견제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할 것을 독자제위께 다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일동

[현대불교신문사·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파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 등 회 연등축제

불기 2555(2011)년 5월 6일(금) ~ 8일(일)

5월 6일(금)
전통등 전시회

5월 7일(토)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5월 8일(일)
불교문화마당
공연마당
연등놀이

